제 2전선 두날개필리핀선교센터
필리핀 두날개 선교교회 소식

잘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만큼이나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저희 센터와 마닐라 마리니까 두날개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 주시는 가족, 친구, 전주동부교회, 풍성한교회와 두날개네트워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행복한 연합 선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두날개 선교회와 대표이신 김성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수 천명씩 늘어나 현재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확진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외출이 엄격하게 제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닐라 대도시는 지역간의 락다운 상황과 통금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출입이 10명 이하로 제한되었고, 대면 예배도 다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육과 훈련, 행복모임, 셀모임, 예배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풀타임사역자들이 교대로 교회에 출근하며,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의 사역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해, 코로나의 위험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10명 이하의 사역자들이 꾸준히 모여 예배를 지키며 섬기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은 필리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 청소년 사망자가 많아졌습니다. 얼마전, 마리끼나 틴셀교사의 친동생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슬픔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가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동생은 가족 없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고, 화장과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이민자 확진자가 최대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지 사역을 하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이민자 소식이 현지 뉴스에 방영되며 한국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필리핀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더이상 먼 일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선행과 공로를 쌓아 죽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천국에 가기 위해 선행과 공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코로나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경제적인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불신과 의심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매주 예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적 소그룹 모임인 셀 모임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소그룹 모임인 행복모임을 통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이르기 위해 양육과 훈련을 지속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안락함에 비교 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돕기 위해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 모임을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가족들 중에 최소 한 명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코로나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지에서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소 그들에게 대면으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온라인 행복모임을 통해 참된 생명과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출은 할 수 없지만, 봉쇄 기간 동안 저희 교회 다니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부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복모임, 셀모임, 예배에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고, 행복모임에 참석하면 할 수록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 보다는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함께 하는 시간이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하던 일을 마땅히 멈추어야 하는 이때에,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약40여명이 최선을 다해 온라인 양육 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미 졸업한 성도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양육과 훈련을 지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양육과 훈련을 끝낸 성도들은 오히려 양육과 훈련을 통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양육과 훈련에도 많은 성도들이 지원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세계선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영아부의 부흥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희 젊은 성도들 가정에 출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출산을 위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서, 빈번한 홍수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봉쇄가 지속 되면서 산모들은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셀원들과 함께 하는 온라인 셀모임과 행복모임이 산모들에게 많은 위로와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긴급한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모두 무사히 출산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유아세례를 집례할 예정입니다. 봉쇄가 풀리고 안전하게 유아세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한 세대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앙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2021년 저희 현지 리더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 제 7기 집중훈련과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을 수료한 것입니다. 저희 사역자들과 셀리더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집중훈련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컨퍼런스만 일부 참석하고 매년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온라인 집중훈련을 통해 17명의 현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집중 훈련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정부 방역지침으로 때로는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숨죽여 가며 참석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전은 물론 영상통역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어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전에 누리지 못한 복음의 가치와 능력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잠깐 세상이 주는 기쁨에 속아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들은 예배와 셀모임 행복모임 양육과 훈련에 순종하여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지금 이 시간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극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에 바람이 불면 키질 하는 사람 쪽으로 더욱 붙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싹도 틔우지 못한 겨와 같지만 이제는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순간왔다 새치 혀만 적시고 사라지는 기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는 겨와 같아 보이지만, 새싹을 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 씨 뿌리고, 물 주고 눈물로 추수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주인 곁으로 열심히 파고드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으로 하는 선교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모든 성도가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그리고 알곡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물질이 없어 멈추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루 속히 필리핀, 인도, 북방 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에서 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기도해주세요.

1.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현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장단기 선교사와 선교센터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대면 과 비대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통해 가정과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소서.
2. 목회자 4명, 풀타임 사역자 6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 교회의 일꾼이 되게하소서. 현지사역자들의 사역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3. 마닐라 마리끼나 교회를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비전센터건축을 위한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하루 속히 채워지게 하소서.
4. 지난 10년의 사역기간 동안 김종하선교사 가정의 재정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재정 후원자들의 형편과 상황으로 재정 후원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종하 선교사 가정의 재정후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현지사역자후원: 기업 093-084343-04-091 예금주 두날개선교회
- 센터건축후원:기업 196-053841-01-162 예금주 두날개선교회
- 김종하선교사후원: 기업 245-043782-04-062 예금주 두날개선교회